

1990년대 북한의 체제유지 성공요인 이탈, 항의, 충성 그리고 협상*

이연재(경북대학교)

대외적으로는 고립무원의 상태, 정치적으로는 50년을 통치해 온 지도자의 죽음, 멈춰선 공장과 수십만의 아사자를 낸 경제적 대재앙의 현상이 1990년대 북한이었다. 쇠퇴하는 조직에서 인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탈하거나 항의하는 것이었다. 인민의 다수는 시장에서 상업 활동에 나서거나 비합법적 방법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등 공식경제로부터 이탈했다. 조직적, 정치적 성격은 아니었으나 개별적이고 일상적인 항의가 표출되었다. 당과 국가는 이탈과 항의를 적절한 선에서 관리하고 억제해야 했다. 그것이 충성심의 역할이었다. 강제와 동의는 동전의 양면이 되어 충성심을 만든다. 인민들의 공식경제로부터의 이탈, 시장으로의 진출에 대한 국가의 반응은 묵인과 수용이었다. 체제유지의 기본양식인 ‘생존과 충성의 교환방식’이 바뀌었다. 생존을 ‘책임’ 지는 것에서 생존을 위한 인민들의 이탈을 ‘방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즉, ‘이탈의 수용과 충성의 유지’라는 협상이 이뤄졌다. 충성심은 이탈과 항의를 억제하고 협상을 활성화시켰다. 이 협상의 성공이야말로 1990년대 북한체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에서 체제 붕괴를 회피하게 된 핵심 동력이다.

주제어: 북한체제, 체제위기, 이탈, 항의, 충성, 협상, 강제와 동의

* 이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1990년대 북한체제, 위기와 생존의 동학”(북한대학원대학교, 2017)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1. 서론

1990년대 북한은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위기에 직면했다. 사회주의 체제 몰락의 도미노현상을 막기 위해 당장의 불을 끄는 것도 힘든 시기에 김일성의 죽음, 곤두박질 친 경제상황은 북한 인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이라는 고통의 시기를 안겨주었다. 사회주의 배급 제도는 무너졌고 9년 동안이나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졌다.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의 아사자가 발생했다. 최악의 상황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산사태처럼 덮쳤다는 점, 서로 대립적 성격의 해결책이 병목현상처럼 뒤엉켜 있었다는 점에서 1990년대 북한이 서 있던 자리는 참으로 ‘벼랑 끝’이었다. 본 논문은 1990년대 북한이 벼랑 끝에서 벗어나 체제유지에 성공한 요인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다.

1990년대 전후 사회주의국가의 체제전환과 함께 북한의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는 북한 붕괴론을 광범위하게 확산시켰다. 북한체제가 경제적 정당성 이상의 정치적 정당성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는 점, 경제위기의 ‘외인(外因)론’ 등 지도자와 체제의 책임을 비껴가는 위기담론이 인민들에게 수용되었다는 점을 붕괴론은 간과하고 있었다. 또 김정일의 오랜 지도자 승계과정, 지배엘리트가 운명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이해 부족이 붕괴론을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경제위기 혹은 정치위기 자체만으로 정치체제에 근본적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의 대응능력과 정책, 그리고 이를 수용 혹은 거부하는 인민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체제의 향방을 봐야 한다. 경제위기 자체의 문제보다 위기가 만들어내는 구조적 변화, 이 구조적 변화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정치적 제 관계의 변

화, 문화와 의식, 규범 등 상부구조의 조율이 정치체제의 미래를 결정한다.

본 논문은 허쉬만(Albert Hirschman)의 ‘이탈(Exit), 항의(Voice), 충성(Loyalty)’ 모델을 도입하고 이에 ‘협상(Negotiation)’이라는 개념을 추가, 그의 이론을 재구성하여 역사의 전개과정에서 행위자들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를 추적한다. 이를 통해 북한체제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인민과 국가의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19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생존의 동학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연구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 현재의 북한체제를 이해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기초를 놓는다. 특정 시기의 역사적 전개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들의 영향 아래 있기 마련이다. 전후 전쟁이 남긴 북한 계층구조의 변화, 8월 종파사건과 갑산파사건 이후 이질적 정치 분파의 붕괴, 중소분쟁 이후 자주노선의 완성처럼 지금의 북한사회는 1990년대의 유산 속에 있다. 둘째, 올바른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한다. 적대적 대북정책의 밑바탕에는 북한의 목숨 줄이 곧 끊어질 것이라는 믿음 혹은 기대가 있다. 김정일 시대가 지나고 김정은 시대가 와도 붕괴론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붕괴 가능성이 높던 1990년대 북한체제는 살아남았다. 그 원인, 그 동력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면, 김정은 시대의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도움 되는 관점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논의

1) 허쉬만 이론의 도입

사회변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조 중심적 시각과 행위자 중심적 시각은 오랜 쟁점이었다. 구조 중심적 시각은 역사발전, 사회변동의 주체를 사회구조로 보고 행위자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기존 구조 자체의 변화와 발전이 새로운 구조를 낳는다고 본다.¹⁾ 행위자 중심적 시각은 행위자를 사회변동의 주체로 보고 행위자의 목적과 의도를 가진 행동에 의해 새로운 구조가 창조된다고 본다.²⁾ 한편 이와 같은 두 입장을 대립적으로 극대화하지 않고 통합해 내려는 다양한 입장이 제시되어 왔다.³⁾

구조적 시각은 사회변동의 거시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구조가 행위자들의 미시적 행위의 산술적 총합이라는 시각에서 그

-
- 1) “생산관계의 구조는 생산담당자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기능’을 규정한다. 이들은 이 기능의 ‘담지자’로서 위치를 점하는 자일뿐이다. 진정한 주체란. 생산관계이다.” Althusser and Balibar, *Reading capital*(London: New Left Books, 1975), p.180; 테다 스카치폴은 기존 혁명 이론이 “주어진 형태의 역사적 환경 속에서 특정 유형의 복합적인 사회의 제도적 발전양식에 관한 가설을 통해 설명하지 않고, 반란적인 대중의 상황이나 마음의 상태, 혹은 의식적인 혁명적 전위의 출현에 관한 가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테다 스카치폴(Thea Skocpol), “혁명에 대한 설명들: 사회구조적 접근의 모색,” 박준식 옮김, 『현상과 인식』, 제11권 4호(1988), 115쪽.
 - 2) “제도, 대규모 조직, 사회 분화체계 등과 같은 거시 사회적 현상들은 각자의 행위들을 통해 서로 연결된 사람들의 배열로 간주된다.” Herbert Blumer, *Symbolic Interactionism*(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1969), p.58, 84.
 - 3) “구조는 사람들의 행위를 조형하지만 구조 역시 그 구조를 구성하고 재생산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하는 것이다.” Anthony Giddens,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Volume 1: Power, Property and the State*(London: Macmillan, 1981), p.27.

실재성을 부정하거나, 행위자들의 의도와 동기, 주장과 행동이 구조에 의해 ‘제한’된 ‘구조화된 행위’라는 점을 놓쳐서는 객관적 사회현상에 접근하기 어렵다. 그러나 ‘구조화된 행위’가 행위자의 주체성을 부정한다고 할 수 없다. 행위가 단순한 구조의 부산물, 단순한 규칙의 수행, 혹은 규칙에의 복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⁴⁾

한 사회의 미래가 단지 객관적으로 주어진 환경에서 위치 지워진 구조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는 측면을 일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기존 구조에 영향을 받으나 새로운 구조를 창출해 가는 행위자의 역할을 주목해야 한다. 더구나 구조의 유동성과 그 내구성의 약화에 비례하여 행위자의 주체성과 역할은 더욱 커지게 된다. 본 논문은 이처럼 구조의 균열이 행위자의 주체적 행위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에 주목하여, 조직의 쇠퇴에 따른 행위자의 반응을 분석하는 허쉬만의 행위자 모델을 활용한다.

허쉬만의 ‘이탈, 항의, 충성’ 모델의 원래 행위자는 기업과 고객이 다. 허쉬만은 기업의 서비스나 상품의 질이 하락했을 때 고객이 보이는 반응과 기업의 재반응을 통해 기업이 회복되거나 퇴출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 경제영역의 모델을 허쉬만은 조직, 국가 등 사회·정치적 영역으로 확장했다. ‘이탈할 것인가, 항의할 것인가’는 비용과 효과에 대한 합리적 계산으로 결정되지만, 해당 기업과 조직에 대한 ‘충성심’의 영향을 받는다. 이탈과 항의, 충성심의 각 조합과 상호작용이 기업 혹은 조직의 쇠퇴와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허쉬만 모델을 적용할 북한체제의 행위자를 인민과 국가, 지배엘리트로 나누었다. 여기서 국가는 수령-당-국가를 일체형으

4) Pierre Bourdieu and Matthew Adamson(trans.), *In Other Worlds*(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1990), p.9.

로 본 개념이다. 북한의 유일영도체제에서 수령은 지배엘리트계층, 그리고 인민들로부터 절대적 자율성을 구비하고 있다. 지배엘리트는 특정하기 까다롭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핵심군중, 좁은 의미에서는 당, 군, 국가기구의 고급간부를 의미한다.⁵⁾

2) 이탈과 항의, 충성

고객이 기업의 제품 구매를 중지하거나 회원들이 조직을 탈퇴한다. 이것이 ‘이탈방식’이다. 그 결과 이윤이 하락하고, 회원 수가 줄어들고, 경영진은 무엇이 잘못되어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가를 알아내어 이를 고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아무런 제한 조건이 없는 경쟁체제에서는 고객이나 회원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하게 된다. 상품의 질이 나빠졌을 때 가격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 고객이 다른 기업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기업의 고객이나 조직의 회원은 경영진 혹은 상부기관에 불만 사항을 직접 토로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의제기 방식을 통해 관심계층에 전달한다. 그 결과 경영진은 다시 한번 사태의 원인을 찾아내어 고객이나 회원의 불만을 치유하려고 한다. 이것이 허쉬만이 설명하는 ‘항의방식’이다. 허쉬만은 독점상태에서 이탈이 용이하지 않거나 (이탈방식의 보완물), 이탈을 통한 당장의 이득(확실성)보다 기업, 조직

5) 『독재자의 핸드북』식으로 분류자면 넓은 의미에서는 ‘실제 선출인단’과 ‘유력집단’, 좁은 의미에서는 ‘승리연합’과 ‘핵심집단’이 될 수 있다. 부루스 부에노테 메스키타(Bruce Bueno de Mesquita)·알라스테어 스미스(Alastair Smith), 『독재자의 핸드북』, 이미숙 옮김(과주: 웅진지식하우스, 2012).

의 변화(가능성)를 가치 있게 판단할 때 항의행동이 주로 일어난다고 한다.

충성심은 ‘확실하게 보장된’ 이탈을 마다하고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의 ‘개선 가능성’을 믿고 선택하게 한다. 허쉬만은 충성심의 중요성은 “품질변화에 가장 민감한 고객이나 회원들이 제일 먼저 이탈하려는 경향성을 무력화”시키는 데 있다고 했는데, 이는 충성심의 존재가 유능한 사람이 조직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는 유용한 목적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허쉬만은 이탈과 항의이라는 반응과 이에 대한 재반응이 기업과 조직의 원상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지만, 한편에서는 둘 다 회복 가능한 수준에 그쳐야 한다고 한다. 여기서 충성심의 역할이 있다. 충성심은 이탈을 억제하고 항의를 활성화하기도 하지만, 이탈과 항의 모두를 억제하기도 한다.

조직, 특히 가입과 이탈이 쉽지 않은 조직(가족, 국가, 교회)의 충성심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허쉬만은 충성심은 이탈과 항의의 선택을 자제하게 하는 기제로서 강제와 동의, 심리적, 제도적 장애물을 통해 실현된다고 본다. 보호관세, 복잡한 이혼 수속, 과문, 명예훼손, 생계 및 생명의 박탈, 낙인찍기 등은 충성심의 기제가 된다. 강제와 동의는 동전의 양면이 되어 충성심을 만든다.

3) 허쉬만의 수정: 협상

허쉬만이 이탈, 항의, 충성의 개념으로 쇠퇴하는 조직의 회복메커니즘을 제시한 이후 이를 보완하거나 수정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허쉬만의 경우도 자신의 이론을 보완했다. 예를 들면 허쉬만은 이탈

과 항의방식이 동시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했으나, 이후 1989년 동독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독일 통일과정을 보면서 이탈이 항의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탈과 항의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⁶⁾

본 논문은 이탈, 항의, 충성과 함께 ‘협상’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였다. 이탈, 항의, 충성 이외의 개념을 추가하는 것은 기존 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는 비교적 독립된 행위패턴의 필요성 때문이다.⁷⁾ 허쉬만 이론은 기업, 조직의 쇠퇴에 따른 고객, 회원의 반응을 이탈, 항의라는 개념으로 제시하고, 또 이탈과 항의에 영향을 미치는 충성심의 영향과 충성의 메커니즘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허쉬만 이론은 이와 같은 고객, 회원의 반응과 기업, 조직의 재반응을 통한 원상회복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런데 허쉬만 이론은 행위자와 행위자 사이의 상호관계, 이탈, 항의, 충성이라는 반응과 재반응의 조합이 도달하는 특정한 행위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즉, ‘협상’은 조직이 쇠퇴한 상황에 대한 회원의 반응과 조직 경영자의 반응, 혹은 회원의 반응에 대한 조직 경영자의 재반응, 혹은 조직경영자의 반응에 대한 회원의 재반응의 특정한 교환관계를 개념화한 것이다.⁸⁾ ‘협상’은 회원과 조직경

6) Albert Hirschman,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 Essay in Conceptual History,” *World Politics*, Vol.45, No.2(1993), pp.173~202.

7) 허쉬만 이후 연구에서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었는데 태만(Neglect) 등이 그러한 예이다. 태만은 조직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에 비용과 위해를 가하는 부정적 행위를 의미한다. 이탈, 항의, 충성, 태만이라는 네 가지 개념이 EVLN이라는 약칭으로 명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논문을 참고. 김서용·박원수, “EVLN(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의 문화적 기반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2005).

8) 양무진은 협상을 “공통되거나 상충되는 이익을 동시에 갖는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그들이 함께 결정한 방식을 통하여 현재보다 좀 더 진전된 것을 추구하기 위한 전략적 영향력의 상호작용 과정”으로 정의하면서 협상을 ‘상호영향력의

영자 사이의 긴장의 과정이자 이탈과 충성, 항의와 충성 사이의 교환의 결과물이다. 충성심은 이탈과 항의를 억제하고 ‘협상’을 활성화시킨다.

‘협상’은 본 논문의 최종적 결론을 이끈다. 북한체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상황에서 인민들은 탈북(국경을 넘는 이탈)과 공식경제체제로부터 이탈을 결행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일상적 항의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할 위험은 상존했다. 북한 국가는 충성심을 유지하는 정치, 정책적 행위를 통해 인민의 이탈과 항의를 관리한다. 북한 국가는 인민의 생존을 책임질 물질적 수단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인민들의 이탈, 시장으로의 이탈을 수용한다. 인민들은 시장 활동을 인정받는 대신 체제에 대한 충성을 유지한다. 이탈의 수용과 충성이 교환되는 ‘협상’이 성사된다.

3. 북한주민의 이탈·항의와 충성기제의 동원

1) 북한주민의 이탈

이탈의 대표적인 경우는 탈북이다. 그러나 연구자는 국경선 밖으로 이탈한다는 의미의 탈북만을 이탈로 보지 않았다. 탈북은 수적으로 소수의 경우였다. 이 논문에서 탈북보다 더 주요하게 다루는 이탈은 북한 공식경제체제, 사회주의경제체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한다.

행사’이며 ‘공동의 의사결정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견해를 포함한 ‘협상’에 대한 개념은 양무진, “북한의 대남협상전략 유형”(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참고.

(1) 국경을 넘는 이탈

허쉬만은 경쟁체제의 기업과 달리 경제 영역에서의 독점상태나 가족, 국가 또는 교회와 같은 사회조직에서 이탈방식을 사용하기 힘들다고 했다.⁹⁾ 사실 근대 국민국가가 등장한 후 이탈은 전시, 혁명 상황 이외에는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독재국가에서 이탈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다. 가혹한 처벌과 국경봉쇄라는 억압기제와 민족주의 등 국가통합이데올로기가 강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탈북 동기는 정치적 망명이 아닌 생존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식량난이 최고조에 달하고 굶어죽는 사람이 속출하는 환경에서 탈북자가 급증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개혁 개방이 한창이던 중국의 존재는 탈북 증가의 또 다른 유인요인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국경을 넘었다. 중국의 경제발전, 중국 내 조선족과 친인척의 존재는 높은 이탈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유인책이었다.

동독의 경우 이탈은 항의를 강화시키면서 체제전환과 통일의 주요 동력이 된 바 있다.¹⁰⁾ 그러나 북한에서의 탈북이 동독에서처럼 항의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귀결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탈북이 정치적인 동기가 아니라는 것, 탈북의 주 대상국인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공개적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 탈북자들과 연계를 맺고 항의행동

9) 엘버트 허쉬만(Albert Hirschman),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강명구 옮김(서울:웅진지식하우스, 2010), 61쪽.

10)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것. Albert Hirschman,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 Essay in Conceptual History"; 이용일, "추방 탈출 난민: 독일문제의 이주(1945~1998)," 『역사와 세계』, 제38집(2010).

을 불러일으킬 만한 인적·정치적 네트워크가 북한 내부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과 연관된다. 허쉬만이 ‘말썽 많은 고객’에 대해 언급하며 “이동성이 높은 고객들은 제품의 질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고, 지역 내 독점기업의 성과하락으로 인해 이들이 떠나가게 되면 이 독점기업은 편안하게 일상의 나락에 빠질 수 있게 된다”¹¹⁾고 했듯이, 탈북이 위기에 처한 북한체제에 불안요인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¹²⁾

(2) 공식경제로부터의 이탈

여기서 공식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국가가 인정하는 합법적 경제영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적 구분 이외에 기존의 사회적 규범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던 경제행위로부터 이탈도 포함한다. 이러한 구분은 현실에서 겹치거나 경계선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1990년대 이후 식량배급제도의 작동이 불완전하게 진행되다가 대홍수가 난 시기부터 배급제도가 완전히 붕괴되었다. 김정일은 식량난으로 인해 ‘무정부상태’가 도래했다는 표현까지 사용했다.¹³⁾ 에너지, 원자재난으로 많은 공장이 멈췄다. 일자리가 없어서 혹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났다. 농장, 학교도 마찬가지로

11) 엘버트 허쉬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90쪽.

12) 쿠바의 경우도 1980년대와 1990년대 중반 심각한 경제위기의 시기인 ‘특별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카스트로는 “갈 테면 가라”라는 정책을 취하였으며 도리어 미국이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이는 쿠바에서도 이탈이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비바 촘스키(Aviva Chomsky), 『쿠바혁명사: 자유를 향한 끝없는 여정』(서울: 삼천리, 2014), 정진상 옮김, 141~149, 252~257쪽 참고.

13)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돐 기념 김정일의 연설문,” 『월간조선』(1997.4.), 309쪽.

였다. 학생과 교원의 결석과 결근으로 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¹⁴⁾

식량배급제와 상품 유통체계가 붕괴되면서 사람들은 살길을 찾아 장마당으로 향했다. 그동안 소규모 농민시장은 일부 허용되었지만 거래물품과 시·공간에서 제한적이었고 불법이었다. 그러나 불법은 ‘생존’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원래 식량이나 공산품은 거래할 수 없게 되어 있었지만, 북한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식품, 주류, 수산물, 의류, 공산품, 의약품, 가전기기, 나아가 공장 기업소의 설비와 기자재까지 거래했다.¹⁵⁾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고난의 행군이 종료되는 1998년 시점에 장마당은 시장적 거래 공간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다.¹⁶⁾

사람들은 텃밭, 폐기밭 등을 가꾸어 농산물을 사적으로 경작하였다. 텃밭은 주로 협동농장의 공동노동 바깥에서 아주 작은 규모에 한해서 허용되었지만, 경제위기와 함께 규모가 점차 커졌고 도시로도 확대되었다. 북한주민들은 가내 작업반이나 개인부업반 등 가내수공업에도 활발히 진출하였다. 수요와 공급이 상호 맞물리면서 공식경제 바깥에서 공산품의 생산, 공급이 늘어났다. 이뿐만 아니라 공식적 생산 활동이었던 ‘8·3인민소비품증산운동’도 자재 입수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국영직매장에서 판매하지 않고 장마당으로 유출시키는 등 생산으

14)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 통일연구원, 2010), 32쪽.

15)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88~89쪽.

16)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최완규 엮음, 『북한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파주: 한울아카데미, 2006), 130쪽.

로부터 판매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이탈’현상이 일어났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은 탈법적인 영역으로의 이탈도 수반되었다. 도난, 약탈, 설비파괴와 재고 손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¹⁷⁾ 불법적인 경제활동은 당과 군대, 국가기관과 민간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허쉬만은 기업의 성과하락에 ‘예민한’ 고객과 ‘둔감한’ 고객에 대해 얘기한다.¹⁸⁾ 그의 말처럼 공식경제로부터 이탈하는 예민한 주민과 둔감한 주민이 있었다. 대부분의 경제주체들이 장마당과의 직간접적 연계 속에서 생존을 보존하였지만 거주지와 직업, 신분에 따른 차이가 났다. 과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다른 부문과 비교해서는 잘 돌아가고 있던 당-군 경제 소속의 대기업과 군수공장 등의 노동자들, 당 정책에 충실했던 간부들의 이탈 속도는 느렸다. 당원은 제도적으로나 규범적으로 상업 활동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은 제한되어 있었다.¹⁹⁾

북한주민들의 이탈은 한편에서는 기존 구조의 균열을 강화시키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식경제와 비공식경제, 시장과 관료적 조정이 병존하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북한주민들의 이탈은 당-국가-기업소 및 농장이라는 정태적인 공

17) “책임운전수가 없을 때마다 빈번히 불도젤의 기름을 훔쳐서 술과 바꾸었고 지어는 공장에 한 대뿐인 불도젤을 마구 혹사하였다.” 김혜성, “열쇠,” 『조선문학』, 제4호(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4).

18) 엘버트 허쉬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51쪽.

19) “고난의 행군시작이 시작되면서 1999년까지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당에 충실한 당원들,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 등, 고지식한 사람은 굶어죽거나 가정이 파괴되었다. 당원도 아니고 장사를 한 사람들은 죽지 않고 다 견뎌내고, 그러니 2002년 와서 사람들의 머리가 이제는 당에 충실하고 일만 해서는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탈북자 증언. 최완규·노귀남, “제3장. 북한 주민의 사적 욕망,” 이우영 엮음,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파주: 한울 아카데미, 2008), 102쪽.

적 관계와 함께 동적인 시장질서에서 맺어지는 사적 관계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만들기 시작했다.

2) 북한주민의 항의

허쉬만은 “항의방식은 상황을 내부로부터 변화시키려는 시도에서 매우 넓고 다양한 종류의 활동과 리더십을 포함한다”²⁰⁾고 했는데, 북한에서의 항의는 조직적·정치적 항의보다는 개별적·일상적 항의가 주된 형태였다. 인민들의 항의행동은 기존의 정치지배구조의 균열을 만들어냈지만, 기존 구조의 속박에서 해방된 주체적 행위자로서 새로운 구조를 태동시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허쉬만 이론의 이탈, 항의, 충성의 행동유형은 여러 조합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데, 이탈방식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혹은 이탈과 항의 모두의 ‘지나침’을 견제하는 충성심의 존재가 항의의 진전을 억제시켰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지배자도 ‘항의’를 환영하지 않는다. 자기에겐 치명적 상처를 주는 항의는 탄압의 대상이다. 제도화된 민주적 장치를 결여한 수령-당-국가체제에서 조직적, 정치적 항의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일상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일반주민들은 당 간부에게 불만을 표출하였으며 이에 따른 갈등이 상존했다. 북한은 주민들의 비판과 불만제기가 체제나 최고지도자로 향하지 않도록 간부에 대한 불만표출을 용인했다.²¹⁾ 도리어 북한은 비판과

20) 엘버트 허쉬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66쪽.

21) “당정책에 대해서 뒤소리를 하는 것은 나쁘지만 기업소일군들의 사업작품과 사업방법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막아버리면 되겠소? 우리는 완성된 인간이 아니요 대중의 의견과 여론을 들어봐야 하오” 백보흠, 『라남의 열풍』(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4), 424쪽.

상호비판을 체제의 민주주의적 장점으로 선전하기도 했다.²²⁾

가장 소극적이면서 일상적인 항의는 ‘외면’ 혹은 ‘무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당 및 각종 사회단체와 주민조직을 통한 정치교육이나 생활총화 등이 의무화되어 있었고 일상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조직생활을 등한시하고 정치교육에서 빠졌다. “먹고살기 힘들어 장사하느라 그런데 왜 비판하느냐”며 적당히 뇌물로 무마하는 경우도 많았다.²³⁾

1990년대 북한 지배엘리트계층의 정치적 저항 사례는 보고된 것이 많지 않다. 유일영도체제가 갖춰진 이후 반대파의 존재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 과거 종파사건의 예처럼 전당적 숙청작업이 뒤따르지 않았다는 점, 망명한 황장엽의 “정치적으로 잘 단결되어 있다”²⁴⁾는 증언 등으로 볼 때 정치적 저항의 조짐이 있었다 해도 체제에 큰 위협 요인이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와 김정일에 대한 비토 혹은 비판 등 정치적 저항의 성격이 아닌, 위기 극복과 관련한 정책적 이견의 표출, 비둘기파와 매파, 원칙파와 실용파가 없을 수 없다. 1996년 방북해 당, 군, 외교부 관리들을 면담하고 돌아온 조선족 학자는 “북한 내부에서는 외교부 중심의 온건파와 당과 군부의 강경파들 사이에 심한 의견대립이 있다”고 증언했다.²⁵⁾ 수령의 판단과 결론을 뒷받침하는 의견 혹은 수령

22) 당생활총화시 젊은 소좌 한사람이 백학림에게 직무대만 사실을 지적하면서 맹렬히 비판했을 때 백학림은 눈물을 흘리며 반성했다는 감동적인 얘기를 자랑거리로 내세우며 북한의 당생활총화와 상호비판을 북한식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95쪽.

23) 조한범·양문수·조대엽,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서울: 통일연구원, 2010), 120쪽.

24) “황장엽 망명 자필 진술 전문,” 『경향신문』, 1997년 2월 14일.

의 결정을 집행하는 방법론과 수령이 허용한 테두리 내에서의 논쟁구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²⁶⁾

3) 총성: 강제와 동의

총성심은 기존 구조 자체에 내재된 것으로서 모든 행위자의 행위를 제한한다. 동시에 인민(고객)들의 이탈과 항의를 자제하게 하는 국가 행위자(경영자)의 전략의 산물이기도 하다. 허쉬만은 총성심을 이탈과 항의의 선택을 자제하게 하는 기제로서 강제와 동의, 심리적, 제도적 장애물을 통해 실현된다고 본다.²⁷⁾

(1) 통제장치의 작동

북한주민은 조선소년단,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²⁸⁾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등 광범위하고 촘촘한 조직생활 속에서 일생을 보낸다. 북한은 이들 사회단체를 “동맹원들을 교양하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힘있게 조직 동원하는 것”²⁹⁾으로 규정한다.

25) 『한겨레신문』, 1996년 4월 18일.

26) 문학작품 속에서도 간부들 사이의 이견 대립이 묘사된다. 림재성, 『찬란한 미래』 (평양: 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2000), 245~246, 360~363쪽.

27) 엘버트 허쉬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130쪽.

28)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1996년 1월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김정은 집권 후인 2016년 8월, 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청년동맹’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29) 김일성, “조선로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김일성고급당학교창립 40돐에 즈음하여 집필한 강의록(1986년 5월 31일),” 『김일성저작집』, 제4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56쪽.

허쉬만은 “충성파는 조직과 견해가 틀려도 이탈 안하려 한다. 이탈은 불명예스러운 변절, 배반, 반역이 된다... 벌칙은 직접적으로 가해질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내재화되어 있다”³⁰⁾고 했다. 이처럼 북한의 조직생활은 학습과 문화, 여가, 사교의 공간이며 동시에 이데올로기교육, 대중동원, 사상적 통제의 공간, 즉 충성파를 길러내는 공간이다. 알튀세르가 “모든 이데올로기는 구체적 개인들을 구체적인 주체로 호명한다”³¹⁾고 말했듯이, 이렇게 조직된 정치생활은 혁명적 군중, 김일성민족의 일원, 사회주의적 근대화의 전사(戰士)를 탄생시켰다.

이와 같은 통제시스템이 사상교양과 대중적 자발성의 형식을 갖추었다면 또 다른 한편에선 명실상부한 억압기제가 작동하였다. 허쉬만은 “충성파 행동 모델에 또 다른 종류의 왜곡이 일어날 때는 조직이 고가의 이탈비용을 부과할 수 있을 경우다. 파문, 명예훼손, 생계 및 생명의 박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³²⁾고 했다. 북한은 독재기능의 유지가 사회주의체제를 지킨다는 점을 숨김없이 주장하며, “온갖 적대적 요소를 철저히 진압”³³⁾할 것을 주문한다.

30) 엘버트 허쉬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136쪽.

31) 루이 알튀세르(Louis Pierre Althusser),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김동수 옮김, 『아미앵에서의 주장』(서울: 숲, 1995), 118쪽.

32) 엘버트 허쉬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134쪽.

33)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참다운 사회안전일군들을 키워내자: 창립 45돐을 기념하는 사회안전부정치대학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낸 서한(1992년 11월 20일),” 『김정일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242쪽.

(2) 흔들리는 충성심을 붙잡기 위한 위기대응담론

한 손에는 통제가, 또 한 손에는 흔들리는 충성심을 붙잡기 위한 정치교양, 선전활동이 더욱 강화되었다. 혁명의 역사, 유일사상체계와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우월성 담론에 덧붙여 1990년대에 닥친 경제, 정치, 대외적 위기에 대한 대응논리가 유포되었다.

① 사회주의 국제체제의 붕괴와 우리식 사회주의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의 개혁·개방이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의 경제적 미끼를 통한 ‘평화적 이행전략’에 넘어 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³⁴⁾ 다당제 등의 정치개혁은 반사회주의적이며, 시장경제로의 개혁은 인민생활을 고통에 빠뜨리고 제국주의 경제질서의 하위파트너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³⁵⁾

다음으로 사회주의나라의 붕괴 원인에 대해 북한은 현대수정주의자들의 신념 부족과 투항주의, 소련에 대한 강한 의존성, 관료주의로 인한 공산당의 신뢰 상실,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의 약화 및 포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³⁶⁾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와 비교하면서 북한체제가 다른 나라

34)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90년 5월 24일),” 『김일성저작집』, 제4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318쪽.

35) “헝그리아에 조성된 사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로동신문』, 1989년 6월 28일; “동구라과나라들의 정권쟁질은 부흥과 번영이 아니라 실업과 기아, 빈곤을 가져다주었다,” 『로동신문』, 1990년 12월 26일.

36) 김일성, “스웨리에공산주의자로동당 위원장과 한 담화(1992년 6월 29일),” 『김일성저작집』, 제4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378~379쪽; 김일성, “민족올림픽위원회협회 위원장인 메히꼬출판회사 위원장 겸 사장일행과 한 담화(1991년 6월 5일),” 『김일성저작집』, 제43권, 150~151쪽; 김일성, “미국사회로동당대표단과 한 담화(1990년 10월 5일),” 『김일성저작집』, 제42권, 399쪽.

사회주의체제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전파하는 담론으로서 ‘우리식 사회주의’가 제시되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다른 나라 사회주의와의 차별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주의체제 붕괴의 바람을 차단하고 체제에 대한 우월성과 정당성을 심기 위해 제시되었다.³⁷⁾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의 효용성이 현저히 약화되고 경제난과 배급체제의 붕괴로 인해 사회주의체제의 장점이 사라진 정세에서 민족주의담론은 인민대중을 통합시키는 통합의 이데올로기로 강화되었다.³⁸⁾ 1990년대에 들어와 민족주의는 부르주아의 ‘반동적’ 사상에서 ‘진보적’ 사상으로 격상되었으며,³⁹⁾ “민족의 리익이 계급의 리익보다 더 우선적”⁴⁰⁾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이야기되는 시대로 바뀌었다.

② 최고지도자와 체제에 대한 충성 유지

하나의 국가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생존과 충성의 교환시스템에서 북한에서의 ‘충성’은 바로 수령에 대한 충성이었다. 1990년대 위기상

37) 우리식사회주의에 대한 김정일의 주장은 다음의 저작을 참고할 것. 김정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업적을 빛내여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2년 4월 17일),” 『김정일선집』, 제13권; 김정일, “당사상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 불패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1년 5월 5일),” 『김정일선집』, 제1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김정일,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1990년 12월 27일),” 『김정일선집』, 제10권.

38) 김정일의 지도하에 만들어진 1990년대 북한문화를 대표하는 다부작 영화 『민족과 운명』 시리즈는 계급과 출신을 떠나 모든 민족 구성원이 김일성을 아버지로 한 대가정의 식솔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인민들의 통합과 단결을 호소하고 있다.

39) 『조선말대사전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231쪽.

40) 김혜연, 『민족, 민족주의론의 주체적 전개』(평양: 평양출판사, 2002), 71~77쪽.

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권력승계, 즉 새 지도자 김정일의 영도적 지위를 확고히 하는 것과 현실의 어려움을 최고지도자와 사회주의체제의 잘못이 아닌 일선 간부의 문제로 돌리는 것이었다.

김일성이 사망한 후 김정일이 권력핵심부의 충성과 인민들의 호의적 여론을 얻어 명실상부한 새로운 지도자로 공식 등극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은 두 가지였다. 한편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일체화, 다른 한편에서는 독립된 지도자의 이미지를 세우는 것이었다. 김일성에 대한 혁명적 의리는 김정일에 대한 충성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메시지가 전파되는 가운데 김정일은 김일성의 이념과 정책을 이어가는 ‘유훈정치’를 통해 자신과 선대의 일체화를 꾀했다. 1996년 새해 『로동신문』 등의 공동사설은 세 가지 유훈을 언급한다. 혁명적 경제전략, 조국통일과 함께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단결이 유훈으로 강조되었다.⁴¹⁾ 독립된 이미지를 세우는 것은 ‘우리식 사회주의’, ‘조선민족제일주의’, ‘붉은기사상’, ‘선군혁명사상’, ‘강성대국론’ 등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인민대중 앞에 내놓는 것이었다. 동시에 김정일의 영도 역사를 작품화한 ‘불멸의 향도’ 총서처럼 그의 혁명역사를 수령의 역사로 재창조하는 것이었다.

현실의 고통과 불만이 최고지도자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정치적 항의로 발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표적인 논리는 ‘현실의 난관 → 지도자의 오류 없는 교시 → 간부들의 잘못된 집행 → 현실 악화’의 논리였다. 지도자와 체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다.⁴²⁾ 대표적으로 간부들의 관료주의,

41)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자(『로동신문』, 신문 『조선인민군』, 『로동청년』 공동사설),” 『로동신문』, 1996년 1월 1일.

42)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이 없는 자들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무슨 문제가 제기되

패배주의, 본위주의에 대한 비판이 일상적으로 전개되었다.⁴³⁾ 북한은 또 경제 실패의 책임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이를 외부 환경의 변화로 돌렸다. 사회주의국제경제체제 붕괴로 인한 영향,⁴⁴⁾ 제국주의세력의 봉쇄와 고립정책, 안보를 위한 군사비 지출 등의 논리를 전파하여 내핍의 고통을 받아들이도록 했다.

4. 협상: 이탈의 수용과 충성의 유지

1) 협상의 성사

인민의 생존과 체제에 대한 충성을 교환하는 것은 체제유지의 기본 양식이다. 북한 국가는 자신들의 신념과 이데올로기, 자신들이 자

면 사회주의 제도의 결함을 운운하기를 좋아한다. 지난날 사회주의가 좌절된 나라의 정치가들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결함은 제도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 룬마를 탈출 몰랐던 정치가의 실책에 있었던 것이다.” “과학중시사상을 틀어 쥐고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 『로동신문』, 2000년 7월 4일.

- 43)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사활적인 문제” 김일성, “일군들은 참다운 인민의 충복이 되자: 당, 행정경제기관 일군들과 한 담화(1992년 12월 28일),” 『김일성저작집』, 제4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24쪽; “당의 존망과 관련되는 근본문제의 하나” 김정일, “당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자,” 『김정일선집』, 제11권, 21쪽; 본위주의에 대한 비판은 문학작품에서도 묘사된다. 백남룡, “봄소나기,” 『조선문학』, 제10호(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8), 12~21쪽.
- 44) “사회주의 시장이 붕괴되다 보니 무엇을 하나 들여오자고 하여도 외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외화가 없이는 원유 1kg, 솜 1kg도 구할 데가 없습니다.” 김정일,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 배울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 일군들과 한 담화(1997년 3월 17일),” 『김정일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294~295쪽.

량해 온 사회경제제도를 온전히 견지한 채 인민들의 생존을 보장하고 싶었으나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으며 능력과 수단도 제한되어 있었다. 인민의 이탈과 항의에 통제장치의 강화, 위기담론의 전과 등 충성기제가 동원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체제에 대한 충성을 도모할 수는 없었다. 인민과 국가 사이의 생존과 충성을 교환하는 새로운 협상이 필요했다. 국가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협상수단은 경제개혁이다. 이 개혁은 구조적으로 강제되고 인민들의 이탈로도 강제된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었다.

생존과 충성의 교환방식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과거엔 생존에 대한 국가의 ‘직접 책임’과 충성이 교환되었다면, 생존에 대한 ‘자율성의 보장’이 충성의 교환조건이 되는 생존과 충성의 교환방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즉, 이탈을 수용한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 이탈의 수용은 인민들의 주 생존무대가 된 시장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일련의 경제개혁조치를 말한다. 즉, 이탈의 수용은 한편으로는 인민들이 체제 밖 경제영역으로 진입하여 생존을 도모하는 것을 인정하고 묵인하는 것이며, 또 다른 의미에서는 기존의 경제이념과 정책·제도로는 지배의 물질적 수단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경제체제의 구조적 변화를 장기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의 쇠퇴와 균열 속에서 인민과 국가, 두 행위자는 자신의 목표를 명백히 가지고 있었다. 국가는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것, 인민은 생존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국가 입장에서서는 수령·당 지배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부차적이었다. 인민의 입장에서서는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나머지는 부차적이었다. 정치질서를 부정하지 않는 한 인민들의 이탈 행위를 허용하고, 알아서 먹고 사는 것을 막지 않는 한 기존의 정치질서를 인정하는 ‘이탈의 수용과 충성의 유지’를

교환하는 협상이 이뤄졌다. ‘협상’은 1990년대 북한체제가 붕괴의 위험에서 벗어나 생존할 수 있었던 핵심동력이다.

‘협상’은 말 그대로 목표와 결과물이 ‘All or Nothing’이 아니다. 그래서 ‘협상’은 기존 구조의 타파나 새로운 구조의 온전한 생성이 아니다. 1990년대 이탈의 수용과 충성의 교환 협상에서 이탈의 수용은 제한적이었으며, 경제개혁조치는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기는 했으나 변화를 뒤쫓아 가기 바빴다. 정치적 차원에서 볼 때 수령-당-국가체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치지배질서를 강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뿐 별다른 정치개혁과제가 도출되지 않았다. 즉, 수동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사회를 재조직화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⁴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북한 인민들은 협상을 받아들였는가. 협상의 성공은 충성심이 이탈과 항의를 억제하고 협상을 활성화시켰음을 보여준다. 국가의 위기대응담론은 인민들에게 수용되었으며, 지배적 정치담론의 영향력은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우위가 유지되고 있었다.

2) 경제개혁

북한의 경제개혁은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현실을 쫓아가는 수준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개혁·개방이 금기어인 공식담론과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인민들의 생존 위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조직의 쇠퇴’에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45)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수동혁명(Passive Revolution)은 피지배계급의 정치적 저항, 혁명적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지배계급이 체제 수호를 목표로 하여 사회를 재조직화하는 ‘혁명 아닌 혁명’으로 정의할 수 있다.

(1) 사회주의과도기의 현실적 적용

1990년대 북한에서 이뤄진 중요한 변화는 사회주의 발전단계의 조정, 즉 사회주의과도기의 현실적 적용이 이뤄진 것이다.⁴⁶⁾ 사회주의과도기와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이론과 정책, 현실의 불일치가 상존했다. 그러나 1990년대 북한의 현실은 그 이전과 비교할 때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 즉 과도기의 완수라는 목표와 훨씬 멀어져있었다. 도리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확립되었다는 1958년의 성과를 무색하게 하는 사적 생산, 유통의 확산에 직면했다. 이와 같은 변화는 1958년 이후 수십 년 동안 추진되어 온 ‘협동적 소유의 전 인민적 소유로의 변화’⁴⁷⁾를 비롯한 사회주의과도기에 부여된 과제를 후퇴시키도록 강제했다.

사상·도덕적 유인요인 못지않게 물질적 유인요인을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물질적 유인요인은 공장·기업소, 농업, 무역 등 모든 분야에서 강화되었다.⁴⁸⁾ 경영자의 결심에 따라 개인 업적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가능케 하는 독립채산제의 개선,⁴⁹⁾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

46) 사회주의과도기의 경제적, 정치적 특징과 과제에 대한 북한의 시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헌을 참고할 것. 김일성,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와 프롤레타리아독재문제에 대하여: 당사상사업부문일군들앞에서 한 연설(1967년 5월 25일),” 『김일성저작집』, 제2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과학교육부문일군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1969년 3월 1일),”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0).

47) “로동계급과 농민의 계급적차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협동적소유를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켜 생산수단에 대한 전인민적소유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여야 합니다.”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제4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218~219쪽.

48) “기업관리, 그것은 곧 원가이며 리윤이었다.” 김문창, 『열망』(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83쪽.

49) 이와 관련해서는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서

는 ‘새로운 분조관리제’가 시행되었다.⁵⁰⁾ 이때의 경제관련 논문들도 각 단위의 창발성과 물질적 자극의 강조, 평균주의의 극복, 노동의 양과 질에 따른 사회주의적 분배제도 등을 강조하였다.⁵¹⁾

1990년대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된 헌법 개정은 비록 중국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처럼 급진적 변화는 아니지만 1958년 사회주의적 개조 완성론, 1972년의 사회주의헌법의 제정에 비하면 이상론, 관념론에서 현실론으로 조정된 것이다.⁵²⁾

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1), 351~352, 370~371쪽 참고.

50) “분조관리제 도입 30돐,” 『조선신보』, 1996년 10월 24일.

51) 윤영호, “사회주의로동행정리론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강령적문헌,” 『경제연구』, 제1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90), 8~11쪽; 김재현, “도시경영부문에서 점수제에 의한 생활비분배방법,” 『경제연구』, 제1호(1990), 31~33쪽; 서승환, “사회주의적로동보수제는 근로자들의 창조적 로동활동을 추동하는 중요공간,” 『경제연구』, 제2호(1990), 14~17쪽.

52) 북한은 1992년에 1972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을 재개정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10조)를 ‘인민민주주의 독재’(12조)로 바꾸었다. 이와 같이 사회발전단계를 조정한 문제의식은 사회주의제도에서 본질적 문제인 소유부문에서도 변화를 보였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현장에서 ‘전 인민적 소유’로의 전환이 자연스런 흐름이라고 여겨지던 것이 ‘협동적 소유’부문(21조)은 ‘전 인민적 소유’ 부문과의 ‘유기적 결합과 병행 발전’이 강조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1998년 헌법 개정에도 반영되었다.

1998년 개정 헌법은 내각 중심의 실용주의적 경제정책 방향이 제시되었다. 생산수단의 소유주체가 ‘국가와 협동단체’에서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20조). 개인소유의 주체도 ‘근로자’에서 ‘공민’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생산에 종사하지 않는 노약자, 가정주부, 연금생활자 등 모든 주민의 개인소유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24조). 협동농장원이 아닌 주민, 근로자, 사무원들에 의해 불법적으로 경작되어 왔던 텃밭을 합법화하여 개인 텃밭과 산출물에 대한 개인 소유 인정과 상속권의 보장 등 개인소유권의 범위를 확대했다(24조). 국가경제관리에서 원가, 가격, 수익성 등의 경제적 개념의 올바른 이용 등 시장 경제적 경영기법의 수용을 제기하였다(33조). 이밖에 국가가 하거나 국가의 감독 하에 있던 대외무역을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로 변경하였으며(36조), ‘특수경제지대에서의 여러 가지 기업창설, 운영을 장려한다’는 조항(37조)을 신설하여 합영·합작 이외에도 100% 외자기업 유치 허용을 시사했다.

(2) 비공식 경제의 묵인, 시장의 수용

북한이 시장을 부정적 시각에서만 봐 온 것은 아니다. 김일성은 사회주의사회에서 부업생산이나 농민시장이 남아 있는 것은 나쁠 것이 없으며 오히려 좋은 것이라고도 했다.⁵³⁾ 김일성의 이런 언급은 시장을 용인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어떤 일을 할 때 원칙과 이론에 맞춰야 하는 북한 사회의 특성상, 그리고 그 원칙과 이론의 기준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말씀’과 ‘교시’는 필요에 따라 소환되었다.

북한정권의 수립 이후부터 부분적, 보조적으로 인정되어온 합법적인 소규모 농민시장은 국가배급체계의 붕괴와 함께 대규모의 암시장으로 변모했다. 암시장의 확산에 대해 북한당국은 통제와 묵인을 반복했다. 하지만 큰 흐름으로 보아서는 시장은 묵인되었다.⁵⁴⁾ 당국은 중앙의 지원 없이 각급 생산 및 지역 단위가 원자재, 식량, 생필품 등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자력갱생 방침을 내렸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⁵⁵⁾ 농민시장은 1989년부터 매일장으로 바뀌었으며 비인가 시장인 암시장도 나타났다. 그러다가 1992년 들어 비인가 시장이 폐쇄되고 다시 10일장이 서게 되었으나 식량난이 심화되자 1993년 3월 다시 매일장이 서게 되었다.⁵⁶⁾ 그동안 거래를 금지하던 입쌀과 옥수수쌀의 판매를 허용하기도 했다.

53) 김일성,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10쪽.

54)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과주: 도서출판 한울, 2010), 23쪽.

55) 김정일,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1994년 10월 20일),” 『김정일선집』, 제13권; 한태홍, “군지방경제의 종합적발전과 인민생활의 향상,” 『경제연구』, 제1호(1995).

56) 전홍태, “북한 제2경제의 성격과 기능,” 『통일경제』, 2월호(1997), 54쪽; 신석호, “북한과 쿠바의 경제위기와 개혁”(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04쪽 재인용.

공식적인 수용 이외에도 비공식적, 비합법적인 묵인도 있었다. 관료들은 국영기업소 기계 부품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등의 범법행위를 눈감아주었고 이를 부추기거나 지원하기도 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공장의 생산물을 종업원에게 주고 장마당에 가서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거나 종업원의 임금을 대신하는 경우가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다.⁵⁷⁾ 장마당 활동과 식량을 구하기 위해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묵인했다.⁵⁸⁾ 국가배급체제가 마비된 상황에서 인민의 생존을 보장할 마땅한 수단이 없었기에 당국의 통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3) 대외경제관계의 발전 모색

북한은 몇 차례에 걸친 외국인투자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특혜적인 투자우대정책을 시행하였고, 1984년 합영법 제정 때와는 달리 자본주의적 경영도 인정할 만큼 공을 들였다. 1991년 나진 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을 발표하고 합작법을 제정(1993년 10월)하고, 합영법을 외국인 투자가 유리하도록 개정(1994년 1월)하는 등 외국과의 합작·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북한은 사회주의시장의 붕괴에 따른 대외무역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서방 자본주의국가와 제3세계 국가로의 무역 대상의 변화, 국제적 기준에 따른 무역 방법의 전환, 무역사업체계의 개편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중에서 1991년 도입된 ‘새로운 무역체계’는 핵심적 개선책으로서, 생산자가 직접 무역이나 외화벌이에 나서 자체적으로 먹고

57) 조정아,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6).

58)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서울: 도서출판 해남, 2004), 158쪽.

입는 문제를 해결하라는 의도로 시행되었다.⁵⁹⁾ 생산단위와 지방으로 무역권한이 이관되었으며, 내각에서 독립되어 있는 당과 군 경제의 무역권한도 하급 단위로 이관되었다. 이와 같은 무역의 분권화는 무역을 통한 상품거래를 확대해 시장 활성화의 동인이 되었으며, 당시 강조되던 자력갱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3) 협상 성공의 배경

(1) 위기대응담론의 수용

사회주의권 붕괴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 이 문제에 대한 북한사람들의 인식은 북한 매체에서 전하는 공식적인 해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련이 사회주의 종주국이란 책임을 버리고 사회주의가 망한 것인 양 몇 푼의 달러에 팔려 배신행위를 했다”, “우리는 조선식 사회주의를 했지, 소련식 사회주의를 하지 않았다”⁶⁰⁾라는 현지에서의 인터뷰 반응은 사회주의권이 붕괴된 후 몇 년 지나지 않은 시기의 조사에서도 드러난다. 북한체제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30~40%에 그쳤지만 북한체제의 사회적 우월성과 민족주의에 대한 지지가 각각 70%, 99%에 이른다는 점은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내면화 정도가 상당히 깊다는 점을 보여 준다.⁶¹⁾

권력 승계 작업이 오랫동안 진행되고 김일성과 함께 공동통치도 하였지만,⁶²⁾ ‘후계자’ 김정일이 김일성과 같을 수는 없었다. 김일성에

59) 리신호, “새로운 무역체제의 본질적특징과 우월성,” 『경제연구』, 제4호(1992), 30쪽.

60) 조광동, 『더디가도 사람생각하지요』(서울: 지리산출판사, 1991년).

61)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6쪽.

대한 지지는 “열렬하며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공통된 반응인 데 반해 김정일은 김일성과 비교해 7:3 정도로 낮게 평가된다.⁶³⁾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지도자 개인에 대한 평가는 유보될 수 있지만, ‘세습체제’ 자체에 대한 평가는 또 다른 문제다. 봉건국가를 거쳐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민주주의 혁명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채 제한된 역사적 경험에 머물러 있던 북한주민이 국가가 제시하는 정치프로그램과 전 사회적으로 전개된 선전공세에 반하는 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는 세습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도록 했다.⁶⁴⁾

경제위기의 원인을 바깥으로 돌리는 위기대응담론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경제적 어려움을 사회주의경제협력체제의 붕괴와 미국 등 서방의 경제봉쇄 때문으로 여기고 체제나 지도자를 비난하지 않는다.⁶⁵⁾ 북한 국가 앞에 닥친 안보위기는 통치자에게는 불안요소가

62) 김일성과 김정일의 공동통치과정에 대한 묘사는 백보흠·송상원, 『영생』(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7).

63)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88~89쪽.

64) 김신희·이우영,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 『현대북한연구』, 제17권 3호(2014), 289쪽.

65) “아무리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은 미국이 지구상에 하나 남은 사회주의 국가를 압살하려고하기 때문이지 김정일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수령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굶어 죽더라도 자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못살고 못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다 미국 때문이고 수령과 지도자가 있어서 미국에 압력을 가해서 식량도 받아내고 지도자 덕분에 이만큼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85쪽; “김정일 위원장이 나쁘기보다는 ‘운이 좋지 않구나.’라고 생각했다. 군부대 시찰 등을 보면 우리를 위해 고생한다고 생각한다. 나이든 사람은 ‘배급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 말라’한다. 가정을 먹이는 것도 힘든데 수만 수천가구를 먹이는 게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감정을 가지고 산다.” 탈북자 인터뷰.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7), 102쪽.

자 동시에 통치에 긍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한다. 동맹의 붕괴, 전쟁
일보직전까지 간 핵 위기, 김일성의 사망과 극심한 경제난 등 1990년
대 정세의 특징상 안보위기는 인민들에게 특별히 다가갔다.⁶⁶⁾

인민들이 충성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인 것을 단순한 허위의식의
주입, 박제된 교리의 ‘학습’ 효과로 볼 수는 없다. ‘체험된 경험’⁶⁷⁾과
‘허위욕망’⁶⁸⁾이아말로 충성의 내면화를 가져온 뿌리다. 남한에서 보
릿고개의 극복이라는 ‘체험’을 통해 박정희 향수가 형성되었듯이, 북
한주민에게도 ‘체험된 경험’이 작용했다. 항일운동과 한국전쟁, 전후
복구와 경제건설을 통해 구축해온 강력한 정통성과 승리의 신화가
내면화되어 이것이 북한 사회 전체를 결속시켜 왔다. 역사적 체험과
함께 인위적으로 고안되고 기획된 사상적 일체성과 대중동원 의례,
민족적 정체성이 개개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아비투스(Habitus)를 만들

66) 허쉬만의 다음과 같은 분석은 나라와 나라사이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인 남북한의 현실에 정확하게 접근하고 있다. “조국에 대한 충성심은
없어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란 일반적으로 차별화가 잘 된 제품이기
때문이다. 오직 통신의 발달과 근대화의 전체적인 여파로 국가들이 서로 닮아
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두뇌유출’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탈의 위험성
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때 충성의 존재가 유용해진다. 역사, 문화, 언어를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닮은 나라가 여럿 있다. 이 경우가 충성심을 한층 더
요구하는 나라들이다.” 앨버트 허쉬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117쪽.

67) “그것은 우선 지배자들의 ‘체험된’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세계’에 대한
인정과 저항을 동시에 함축하는 피지배대중들의 ‘체험된’ 경험이라고 반대로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티엔 발리바르(Étienne Balibar), “비동시대성: 정치
와 이데올로기,” 윤소영 옮김, 『알튀세르와 마르크스주의의 전회』(서울: 이론,
2002).

68) 심성과 욕망을 통한 지배, “선진 산업사회에서 개인들은 지배 계급이 만들어낸
욕망을 자신들의 자율적인 욕망이라고 믿고 있으며, 상품의 보편화가 가능하게
만든 평준화된 삶의 양식으로 인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욕망을 추구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인다.” 마르쿠제(Herbert Marcuse), 『이성과 혁명(1954)』, 김
현일 옮김(서울: 중원문화, 2011).

어냈다. 1990년대 위기대응담론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다. ‘체험된 경험’과 달리 ‘허위욕망’을 통한 지배의 물적 토대는 흔들렸지만, 국가는 욕망의 새로운 실현과정을 수용하는 협상을 통해 저항을 회피했다.

(2) 과거와 현재의 대립, 지배적 정치담론의 우위 유지

1990년대는 북한 인민들의 삶과 의식이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이 경계를 이루며 공존과 대립, 타협과 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한 연대였다. 한편에서는 원래부터 지배적 위치를 차지해왔던 공적관계망, 공적담론, 사회주의적 가치와 이념, 집단주의적 윤리가, 다른 한편에서는 사적담론,⁶⁹⁾ 사적관계망, 돈, 개인주의, 이기주의 등 새로운 변화의 기운이 서로를 겨누기 시작했다. 이 공존과 대립의 현장에서 새로운 것은 여전히 미약했고 과거의 것은 지배적 위치를 유지했다. 지배담론의 우위가 유지된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지배적 사회관계는 지배적 의식을 만들어낸다. 공적관계망은 사적관계망에 대해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회·정치적 힘은 공적질서의 담당자에게 있었다. 장사는 생존을 보장했으며 보편화되어 갔지만, 장사하는 것은 여전히 떳떳하지 못한 행위였다.⁷⁰⁾ 장사를 하면서도 대부분 공적 체계에서 배정된 ‘공식적’ 직업에 한 발 걸치고 있었고 그 안에서 형성된 조직생활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69) 이우영은 사적 담론이 공적담론과 다른 점을 이념보다 물질 담론 중심, 체제나 구조보다 일상생활과 개인적 관심 중심, 담론 소재의 다양성으로 정리한다. 이우영, “북한체제 내 사적 담론 형성의 가능성: 공적 담론 위기를 중심으로,” 이우영 엮음, 『북한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과주: 한울아카데미, 2008), 178~179쪽.

70) “아니야요 할아버진 이제 잘 살게 된다고 했어요 엄마한테 장사두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버지장군님께서 가슴 아파한다구 ……,” 리신현, 『강계정신』(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25~30쪽.

둘째, 지배적 정치담론의 영향력은 약화되었으나 이것이 저항적 정치담론으로 대체되지는 않았다. 북한체제 고유의 짙은 정치성 담론은 저항의 정치가 아닌 비정치성 담론, 사적 담론의 강화로 대체되어 간 것이다. 생활의 변화가 의식의 변화로 급속히 바뀌었지만, 이는 정치 사상을 우선하는 집단중심의 사회지향에서 돈과 물질을 우선하는 ‘자아중심의 개인지향’⁷¹⁾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대안의 부재는 외면과 회피, 자기기만을 만들어낸다. 북한주민들은 평상시에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지 않았으며, 의문을 드러내지 않는 ‘획일화의 압력’⁷²⁾하에 있었다. 이는 처벌이 두려운, 먹고 살기 힘들어 다른 생각을 못하는, 허쉬만의 말을 빌리자면, “결함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려는 자기기만”⁷³⁾과 통한다.

북한체제의 공적담론의 지배적 위치를 떠받치고 있던 물질적 토대가 무너졌으나 이처럼 저항적 정치담론의 힘은 여전히 미약했다. 이는 정치체제와 경제의 모순된 현실 속에서도 국가가 인민의 ‘이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정치적 자산으로 기능했다.

(3) 지배엘리트의 충성 유지

혁명은 단지 일반대중의 곤궁함, 불만, 저항으로만 이뤄지지 않는다.⁷⁴⁾ 지배엘리트의 분열을 막는 협상의 성공이야말로 북한체제의 위

71)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191쪽.

72) 침묵의 나선이론에 나오는 개념. 여론과 사회통제에 대한 엘리자베스 노엘레-노이만(Elizabeth Noelle-Neumann)의 견해는 이태건·방영준 옮김, 『여론의 정치 사회학』(서울: 문우사, 1990) 참고.

73) 엘버트 허쉬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130쪽.

74) “‘하층계급’이 옛 것을 원하지 않고, ‘상층계급’이 더 이상 예전의 방식대로 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에야 비로소 혁명은 승리할 수 있다.” 블라디미르

기 극복의 핵심적 동인이었다. 부상하는 남한의 존재, 적대적 분단구조는 북한 지배엘리트가 러시아처럼 체제 전환 이후에도 지배적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최고지도자와 ‘공동운명체’가 되도록 했다. 이는 적절한 협상조건만 갖췄진다면 충성은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테다 스카치폴(Theoda Skocpol)은 국가에 의해 수행되는 개혁조치가 지배계급의 이익을 침해할 때 지배계급의 저항이 일어나며, 개혁에 대한 지배계급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한 결과 정치적 위기가 심화되고 이는 사회혁명의 계기가 된다고 했다.⁷⁵⁾ 북한 국가의 경제개혁조치는 지배엘리트계층의 이해관계와 크게 어긋나지 않았다. 경제개혁 조치들은 생존의 위협에 처한 인민들의 공식경제로부터의 이탈, 아래로부터의 시장화에 대해 국가가 수동적으로 반응한 것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핵심계층, 지배엘리트의 이해관계를 실현하고자 한 국가의 능동적 전략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경제정책을 통해 당, 군 경제를 담당하는 당국은 시장의 주체가 되었으며, 시장 피라미드의 상위에 위치하게 되었다. 상업적 하부구조를 직접 지배하거나 또는 시장적 활동과 종사자를 포섭하여 하부 구성요소로 종속시켰다.⁷⁶⁾ 이에 따른 수익도 당연히 지배엘리트계층의 주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허쉬만은 충성파의 이탈 위협과 관련해 “심지어 가장 충성스러운

레닌(Vladimir Ilich Lenin),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김남섭 옮김(파주: 돌베개, 1995), 94~95쪽.

75) 테다 스카치폴, 『국가와 사회혁명: 혁명의 비교연구』, 한창수·김현택 옮김(서울: 도서출판 까치, 1981).

76)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정책연구』, 20권 1호(2011), 213~215쪽.

회원들까지 이탈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간혹 회원 대 조직의 대립에서 가장 중요한 협상력이다”⁷⁷⁾라고 했다. 시장화를 수용하는 것을 포함한 일련의 개혁조치는 국가와 일반 인민들 사이에서의 협상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배엘리트의 협상을 이끌어냄으로써 체제에 대한 지배엘리트계층의 충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동력으로 기능하였다.

5. 결론

‘쇠퇴하는 조직’에서 인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탈하거나 항의하는 것이었다. 북한 인민들의 일부는 탈북을 감행했고, 다수는 시장에서 상업 활동에 나서거나 비합법적 방법으로 생존을 모색하는 등 공식경제로부터 이탈했다. 한편으로는 일상적 항의가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정치적 저항으로 발전할 위험은 상존했다. 북한 국가는 충성심을 유지하는 정치, 정책적 행위를 통해 인민의 이탈과 항의를 관리한다. 인민의 생존을 책임질 능력과 수단을 가지지 못한 국가는 인민들의 이탈, 시장으로의 이탈을 수용한다. 인민들은 시장 활동을 인정받는 대신 체제에 대한 충성을 유지한다. 충성심은 이탈과 항의를 억제하고 협상을 활성화시켰다. ‘이탈의 수용과 충성’이 교환되는 ‘협상’이 성사된다. 허쉬만이 고객, 회원의 반응과 기업, 조직의 재반응을 통한 원상회복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듯이, 이탈, 항의, 충성, 협상의 상호작용을 통해 북한은 체제유지에 성공했다.

북한체제가 붕괴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국가의 물리적 탄

77) 엘버트 허쉬만,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118쪽.

압이나 개혁이라는 국가의 정책적 성과 혹은 수동적 인민의 무기력함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인민과 국가 등 체제를 구성하는 각 행위자들의 주체적 행위의 반응과 재반응의 상호작용, 사회세력의 복합적인 상호 관계의 산물이다. 이와 같은 관점을 놓쳤을 때, 즉 이탈도 항의도 불가능하다는 주관적 판단, 충성심의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 협상의 능동적 작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면 결국 1990년대에 유행한 북한붕괴론의 재생산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하는 것은 1990년대 북한이 체제붕괴의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이것이 체제에 닥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협상’이라는 개념이 뜻하는 것은 기존 구조가 타파된다기보다 일정하게 변화된다는 것, 새로운 구조가 출현한다기보다 맹아를 생성한다는 의미와 가깝다. 즉, 1990년대 북한에서 전개된 이탈, 항의, 충성, 협상의 전 과정은 한편으로는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 않고 체제유지에 성공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구조적 위기에 따른 도전과 응전의 숙제를 남겨 놓은 과정이었음을 의미한다.

1990년대 북한체제가 겪었던 위기와 생존에 대한 연구는 이탈, 항의, 충성과 협상의 지난한 과정이 기다리는 미래의 북한을 보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북한의 1990년대는 과거의 유산이 여전히 힘을 발휘했던 연대였다. 국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협상의 호조조건이었다. ‘고난의 행군’ 담론은 북한 국가가 독점적으로 개입해 온 집단적 기억정치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혁명과 건설의 역사, 김일성의 유훈, 적대적 타자의 존재는 지배적 정치담론으로부터의 이탈을 막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미래의 북한 국가는 이를 오랫동안 연장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는

지속되겠지만 과거로부터 유산은 동이 날 수밖에 없다. 북한에게 1990년대는 인민들의 삶과 의식이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이 경계를 이루며 공존과 대립, 타협과 투쟁이 전개되기 시작한 연대였다. 이 공존과 대립의 현장에서 새로운 것은 여전히 미약했고 과거의 것은 지배적 위치를 유지했다. 그러나 경제적 하부구조의 변화는 과거의 것과 새로운 것의 공존과 대립 양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1990년대 북한경제는 과도기의 시작이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북한의 시장화는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기는 했지만, 1990년대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구조적 변화에 발맞추어 사회·정치적 제 관계가 변화하고 새로운 문화, 의식, 규범이 확산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오늘날 북한의 모기장이 찢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모기장이 찢어져 모기가 들어온다고 다 죽는 것은 아니다. 철조망의 존재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도둑을 대비하는 것인지, 사람들의 바깥출입을 막자는 것인지 인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의 문제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을 권력은 위로부터 폭력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지배계층이 문화적 수단을 통해 대중의 동의를 확보해나가는 ‘협상’의 과정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⁷⁸⁾ 이 ‘협상’의 수단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북한체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 분명한 것은 1990년대 북한이 시작한 변화가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민과 국가 행위자의 이탈, 항의, 충성, 협상의 상호작용 속에서 북한체제는 또 다른 생존 조건을 만들고 있다. 선부른 붕괴 가능성에 기초한 대북정책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여정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북한체제의 변화는 기

78) 황보영조, “프랑코 체제와 대중,” 『역사학보』, 제182집(2004), 288쪽.

본적으로 체제 내 행위자의 몫이다. 언젠가 붕괴할 것이고 붕괴해야 하는 냉전시대의 시각이 아닌, 객관적 실체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한반도 평화체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견인해 가야 한다.

■ 접수: 7월 11일 / 수정: 8월 6일 / 채택: 8월 9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 김문창, 『열망』(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2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김일성저작집』, 제4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 _____, 『김일성저작집』, 제4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_____, 『김일성저작집』, 제4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김일성저작집』, 제4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김정일선집』, 제1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김정일선집』, 제13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김정일선집』, 제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혜연, 『민족, 민족주의론의 주체적 전개』(평양: 평양출판사, 2002).
- 리신현, 『강계정신』(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2).
- 림재성, 『찬란한 미래』(평양: 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2000).
- 백보흠, 『라남의 열풍』(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4).
- 백보흠·송상원, 『영생』(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7).
- 『경제연구』, 1990년 제1, 2호, 1992년 제4호, 1995년 제1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로동신문』, 1989년 6월 28일, 1990년 12월 26일, 1993년 12월 9일, 1996년 1월 1일, 1999년 6월 16일.
- 『조선말대사전1』(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조선문학』, 2004년 4호, 2008년 10호(평양: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신보』, 1996년 10월 24일.
- 『조선중앙년감』(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0).

2. 국내 자료

1) 단행본

-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병로·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노엘레·노이만, 엘리자베스(Elizabeth Noelle-Neumann), 『여론의 정치사회학』, 이태건·방영준 옮김(서울: 문우사, 1990).
- 레닌, 블라디미르(Vladimir Ilich Lenin),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김남섭 옮김(과주: 돌베개, 1995).
- 마르크제, 헤르베르트(Herbert Marcuse), 『이성과 혁명(1954)』, 김현일 옮김(서울: 중원문화, 2011).
- 메스키타, 부루스 부에노 데(Bruce Bueno de Mesquita)·알라스테어 스미스(Alastair Smith), 『독재자의 핸드북』, 이미숙 옮김(과주: 웅진지식하우스, 2012).
- 박형중, 『북한의 개혁개방과 체제변화』(서울: 도서출판 해남, 2004).
- 스카치폴, 테다(Theoda Skocpol), 『국가와 사회혁명: 혁명의 비교연구』, 한창수·김현택 옮김(서울: 도서출판 까치, 1981).
-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1).
- _____, 『북한경제의 시장화; 양태, 성격, 메커니즘, 함의』(과주: 도서출판 한울, 2010).
-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과주: 한울아카데미, 2000).
- 조광동, 『더디가도 사람생각하지요』(서울: 지리산출판사, 1991).
- 조정아,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서울: 통일연구원, 2010).

조한범·양문수·조대엽,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서울: 통일연구원, 2010).

츨스키, 아비바(Aviva Chomsky), 『쿠바혁명사: 자유를 향한 끝없는 여정』, 정진상 옮김(서울: 삼천리, 2014).

허쉬만, 앨버트(Albert Hirschman),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강명구 옮김(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10).

2) 논문

김서용·박원수, “EVLN(Exit, Voice, Loyalty and Neglect)의 문화적 기반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2005).

김신희·이우영,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 『현대북한연구』, 제17권 3호(2014).

박형중, “북한에서 1990년대 정권기관의 상업적 활동과 시장 확대,”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2011).

발리바르, 에티엔(Étienne Balibar), “비동시대성: 정치와 이데올로기,” 윤소영 옮김, 『알튀세르와 마르크스주의의 진화』(서울: 이론, 2002).

스카치폴, 테다(Theoda Skocpol), “혁명에 대한 설명들: 사회구조적 접근의 모색,” 박준식 옮김, 『현상과 인식』, 제11권 4호(1988).

신석호, “북한과 쿠바의 경제위기와 개혁,”(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알튀세르, 루이(Louis Pierre Althusser), “이데올로기와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 김동수 옮김, 『아미앵에서의 주장』(서울: 숲, 1995).

양무진, “북한의 대남협상전략 유형,”(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이용일, “추방 탈출 난민: 독일문제와 이주(1945~1998),” 『역사와 세계』, 제38집(2010).

이우영, “북한체제 내 사적 담론 형성의 가능성: 공적 담론 위기를 중심으로,” 이우영 엮음,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과주: 한울아카데미, 2008).

전홍택, “북한 제2경제의 성격과 기능,” 『통일경제』, 2월호(1997).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도시 ‘장마당’ 활성화의 동학,” 최완규 엮음, 『북한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과주: 한울아카데미, 2006).

최완규·노귀남, “제3장. 북한주민의 사적 욕망,” 이우영 엮음,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피주: 한울 아카데미, 2008).

황보영조, “프랑코 체제와 대중,” 『역사학보』, 제182집(2004).

3) 기타 자료

『경향신문』, 1997년 2월 14일.

『월간조선』, 4월호(1997).

『한겨레신문』, 1996년 4월 18일.

3. 국외 자료

Blumer, Herbert, *Symbolic Interactionism*. Englewood(Cliffs, N. J.: Prentice Hall, 1969).

Bourdieu, Pierre and Adamson, Matthew(trans.), *In Other Worlds*.(California: Stanford Univ. Press, 1990).

Giddens, Anthony, *A Contemporary Critique of Historical Materialism. Volume 1: Power, Property and the State*(London: Macmillan, 1981).

Hirschman, Albert, “Exit, Voice and the Fate of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An Essay in Conceptual History,” *World Politics*. Vol.45, No.2(1993).

The Success Factors of North Korea's Regime Survival in the 1990s: Exit, Voice, Loyalty and Negotiation

Lee, Yun Jae(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The diplomatic isolation, the political crisis due to the sudden death of the 50-year-long ruler, the economic catastrophe with the shutdowns of numerous factories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ho starved to death were the reality of North Korea in the early 1990s.

In the deteriorating regime, the only choices for the people in North Korea were 'exit' from the existing economic regime or 'voice' against the system. Deviating people engaged in commercial activities in markets and sought their survival unlawfully. Individual and daily 'voice' were present although they were not well organized. In the face of these threats to the existing system, the ruling party and the state needed to suppress and control the 'exit' and 'voice' appropriately. 'loyalty', created and reenforced through force and consent, played a crucial role.

The response of the state to the prevalent ‘exit’ from the existing norms and people’s participation in the market-oriented economy was acquiescence and acceptance of the people’s ‘exit’. The fundamental principle on which the regime of North Korea had based was replaced by a new principle. Before, the existing principle was the “exchange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of keeping people’s survival for ‘loyalty’ for the state.” The new order was based on the agreed-on new principle: the “exchange of acceptance of ‘exit’ for ‘loyalty’.”

The success of the ‘negotiations’ and consensus was possible through the successful maintenance of ‘loyalty’, which, in turn, contributed to the overcome of the crisis in the 1990s. In fact, many factors were instrumental in bringing about the avoidance of the collapse of the system. To sum up, it was the success in these ‘negotiations’ that was vital impetus for the state to avoid the collapse of the political regime in the face of the total crisis in North Korea in the 1990s.

Keywords: North Korea, regime crisis, exit, voice, loyalty, negotiations, force, consent